

'천년의樂, 나주풍류열전' 내일 개막

시립국악단 토요일 상설공연
10월까지 금성관에서 열려
시민·관광객에 색다른 즐거움

나주시립국악단 토요일 상설공연 '천년의樂, 나주풍류열전'이 금성관에서 개막한다.

나주시는 시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인 '천년의樂, 나주풍류열전'이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공연은 11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금성관 동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막공연은 지역출신 작곡가 안성현 선생의 곡을 가요급 2중주로 재해석한 '해당화'를 비롯해 국악 관현악 '춘무', '판 굿', '쇼고 춤' 등 음악과 가무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양시립국악단', 국악교

를 '모던판소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명인·명창들의 초청 공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4회째를 맞은 나주풍류열전은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전통 소리 계승과 시민의 문화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풍류열전은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보고·듣고·치유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나주 삼현육각, 나주들노래 등 지역 소리의 맥을 잇는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풍류열전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풍류열전은 우



나주시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인 '천년의樂, 나주풍류열전'이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나주시립국악단 공연 모습. (나주시 제공)

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올해도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남도의 풍류

를 느끼며 보고, 듣고 치유하는 색다른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시 '청년 농업 인턴제' 참여자 모집

농촌 활력 불어넣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나주시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농업 인턴제'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농업 인턴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 청년 유출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총 사업비 5억3000만원을 투입해 선도농가와 청년 농업인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목별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농업인 간담회 등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청년 농업 인턴제 신청 정원은 총 42명이며 참여 신청서 등 신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서류를 첨부해 15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해야 한다.

시는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현장 실습교육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146만9600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 선도농가는 청년농업인턴 1인당 월 18만9500원 한도에서 교수 수당비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시장 공약사항인 '청년 창업 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연계해 농업 인턴제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지원, 청년 농업인을 건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 농업 인턴제를 지역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을 비롯한 분기별 정기점검 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

나주시장 관사, 한옥 게스트하우스·쉼터로 탈바꿈



나주시장 1·2호 관사가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열린 '한옥 체험' 게스트하우스와 쉼터로 탈바꿈한다. 아래 쪽은 2호 관사터로 한옥 견본주택이 들어서며, 윗쪽 1호 관사는 철거 후 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나주시 제공)

'관치행정'의 유물인 나주시장 관사가 38년만에 사실상 폐지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열린 한옥 체험 게스트하우스와 쉼터로 탈바꿈한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옛 나주읍성내 내역사자원과 연계한 전통한옥마을을 조성사업 차원에서 관사를 철거하고 한옥 견본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가 관리하는 관사는 읍성권에 속하는 금계동 1·2호 관사를 비롯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임명직 부시장에게 제공하던 대호동 현대아파트 등 총 3채다.

이중 1·2호 관사는 지난 1981년 10월 준공돼 38년 간 시장과 부시장 가족의 살림

집 내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여 왔다.

나주시는 과거 부시장 관사였던 2호 관사를 지난해 12월 철거하고 도비 5억원·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1층짜리 '한옥 견본주택(105.12㎡)'을 신축 중이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해 목문화관 뒷편에는 2층짜리 한옥 견본상가(160.92㎡)도 함께 짓고 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한옥상가는 담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준공 후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 된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한옥 견본주택은 인근에 위치한 조선시대 나주목사(羅州牧

使)가 기거했던 살림집 '금학헌(琴鶴軒)' 복사내아와 연계해 '한옥 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2호 관사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시장 전용 1호 관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고 '아름드리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사의 용도 전환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한옥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옥 체험 시설과 쉼터로 탈바꿈하는 관사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여성 농어업인 복지 증진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나주시, 올해 10억여원 지원

나주시가 지역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다.

나주시는 올해 작년 대비 1946명, 7억 200만원이 증가한 여성 농어업인 5073명을 대상으로 총 10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영농기 여성 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카드 발급처를 기존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에서 지역농협 본점까지 확대했다.

바우처 금액 또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연령 조건도 만 70세에서 74세까지 확대됐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나주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으로 직장 의료보험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1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농어업인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성북동 소재) 및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본점에서 자부담 2만원을 납부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 바우처 카드는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 어디서나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병원, 약국, 사행성 업소 등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교육청, 학폭 대책 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춘기)이 최근 나주시 금전면 전남과학교육원에서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연수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도록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조재림 전라남도교육청 고등분화사는 ▲자치위원회 회의진행 시 주의할 점 ▲학교폭력예방 주요 법률 ▲학교폭력 대응 사례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에 참석한 전남외고 한 학부모 위원은 "연수를 듣고 나니 자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자치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춘기 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시되 때론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갈등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초·중·고교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특수·고등학교까지 지역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

더 더하는 학교
더 나누는 학생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비단고을 놀이문화 활성화
학생 자치 역량 강화
나주영 마을학교 구축
비단고을 역사·문화 자랑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Jeollanamdo Noju Office of Education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 15 ☎ 061-330-0154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동신대학교
DONGSHIN UNIVERSITY

창당만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인성을 배웁니다.

바른 인성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을 꿈꿔
당신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Dongshin & Smile 동신대학교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 010-5205-5668(문자로 연락 바람 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